

큰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은 버렸습니다





새천년의
희망을 열어갈
용기있는 정치인



큰 포부가 있습니다

뒤틀리고 꼬인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역사에 장한 일로 기록되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동서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대의원 대회

일시: 1998년 5월 8일 (금) 오후 2시

장소: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펜싱경기장)



그래서 작은 욕심은 버렸습니다

90년 3당합당, 눈 질끈 감으면 김영삼정권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98년 서울시장선거, 여론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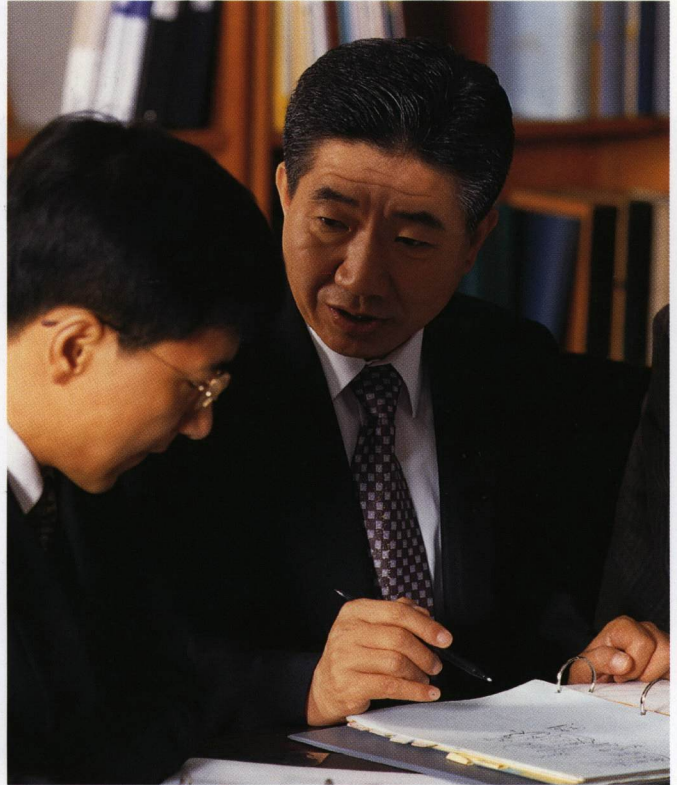
다음 총선,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있었다면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욕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천년의
희망을 열어갈
용기있는 정치인

노무현, 그의 정치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일하느라 불꺼지지 않는 방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돋보인 발군의 능력도 밤새워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령선거때는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수임을 중단한 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결과 변호사 자격을 정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동서로 분열된 나라의 통합을 위해 종로의 영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3당합당 거부, 고향에서 두 번의 낙선, 6년의 원외 생활
 동서화합과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원칙과 소신때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실패했을 때의 부담과
 정치권 개입을 반대하는 언론의 공세에 눌러 누구도 나서길 꺼려했지만
 노동자와 기업, 나라경제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적인 대타협을 이끌어 냈고 3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을 막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변호사시절, 조세·행정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를 설득하여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정권교체의 유일한 가능성은 야권통합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야권통합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야권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대선, 추상적인 세대교체 주장을 반대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위해 뛰었습니다.

여론조사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역량있는 정치인은?

노무현	36.4%
고건	35.1%
이종찬	15.1%
정대철	13.2%
이수성	12.7%

「내일신문」 98. 7. 27~8. 5 미디어 리서치 국민여론조사
 조선일보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의원을 가장 촉망받는 정치지도자 중 한명으로
 선정.(99. 3. 2)



새천년의
희망을 열어갈
용기있는 정치인

항상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들 맞붙기를 피하는
5공실세 허삼수에게 도전, 승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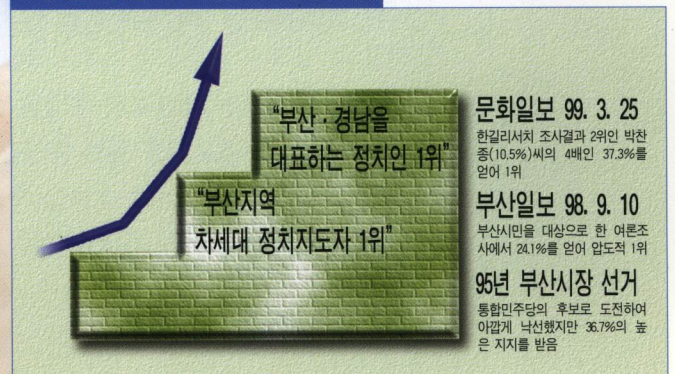
93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
최연소로 당선되는 이변을 창출했습니다.
이로써 중진정치인의 길을 열었습니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 낙선했지만
부산·경남의 중심인물로
부상하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96년 종로에 도전, 다들 의아해 했지만
결국 정치 1번지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다시 부산·경남에 도전합니다.
乾坤一擲, 그는 다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것입니다.

부산시민의 여론조사 추이



노무현의 決斷, 쏟아지는 讚辭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정치가가 있었는가”

「노무현의 부산·경남 출마 결심을 보고받은 김대중 대통령」

“당과 나라를 위해 용단을 내려 주셨다.”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비판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거의 유일한 정치인”

「유시민. 사회평론가」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느냐’고 만류했다는 고백에선 동시대인으로서 일정한 부채의식마저 느껴진다.”

「광주매일 칼럼 99. 2. 11」

“노의원이 종로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종로 사람들은 참 복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결연히 나선 그가 이번에는 부산·경남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종로저널 칼럼 99. 2. 8」

“실리보다는 대의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이미 그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정치인이다.”

「말지 99년 3월호」

“제3의 길을 제시한 기든스 교수는 21세기형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으로 정치적 이상주의를 제시했다. 노무현의원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일신문 99. 2. 13」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는 이류, 삼류 정치가는 될 수 있어도 일류 정치가는 될 수 없다. 낙선을 각오하고 할 말을 하는 노무현의 행동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다.”

「한겨레 21 김동춘 교수 논단 99. 3. 18」

3월호 말지 인터뷰 이후 쏟아진 독자투고들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 지역감정을 돌파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신병륜

부산시 수영구 망미 1동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워 보일 때는 지조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보기드문 진정한 정치인이다”

한규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노무현의원의 희생정신과 패기는 정치인이 갖출 덕목”

이용철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지역감정에 도전하는 노무현 의원의 모습에 진한 감동 느껴”

배재석

경북 경산시 진량읍

“우리 지역에도 노무현의원같은 용기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이근호

강원도 원주



노무현(盧武鉉)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제53회)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 1988년 국회 5공비리 조사특별위원
- 1991년 통합 민주당 대변인
- 1993년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 19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소장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현)
-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장 (현)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발전 특별위원장 겸 경남도지부장

망국병인 지역주의 극복없이
우리의 21세기가 없다고 본다면,
낙선을 각오하고서 지역주의와
정면대결해온 그의 정치이력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준다.
그와 독대한 김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정치가가 있는가”라고
말했다지만, 우리는
“왜 이런 정치가가 여전히 드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 사회학)

국회의원 노무현

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6호 전화 · 788-2928 팩스 · 788-3638

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64 선진 B/D 2층 전화 · 736-6265